

셔츠의 착용실태와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The Wearing Conditions of Shirts and the Subjective Preferences for Shirt Fabrics*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최종명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Choi, Jong M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 Abstract >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wearing conditions of shirts, and examine the preferred subjective sensation for shirt fabric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469 university students (male students 45.3%, female students 54.7%) in the Cheongju area, Korea. Frequency, descriptive analysis, χ^2 and t-tes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gardless of gender, most owned 4 shirts in the autumn, which were each worn once or twice week. Generally, patterned shirts were less favored than those with solid colors, regardless of gender, but the color of the shirts differed slightly according to gender. Most students gathered items from those displayed in the store as their source of information on shirts, and tended to purchase items worth 30,000~50,000 won at franchised stores with friends of the same gender. They almost always looked carefully at the size and brand, but the care label and fiber content were rather neglected during the purchase. While purchasing their shirts, the following elements were considered, in this order of importance: size; color; fitness; comfort; price; tactile sensation. Light, dense, soft, warm, wrinkle-free, dry and strong sensation of the shirt fabrics were the strongest preferences for a purchase.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sensation of shirt fabrics.

Corresponding Author: Jong-Myoung Choi,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2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2791 Fax: 82-43-274-2792 E-mail: jmchoi@cbn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신진교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제어(Key Words): 셔츠(shirts), 착용실태(wearing conditions), 셔츠 소재(shirt fabrics), 주관적 선호도(subjective preferences)

I. 서론

셔츠는 중세시대 이후 상반신의 속옷 또는 중의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칼라와 커프스가 있고 앞여밈이 있는 상의를 말한다. 셔츠는 착용목적에 따라 정장용 셔츠와 캐주얼용 셔츠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디자인에 따라 칼라가 없는 형태에서 칼라가 있는 형태, 짧은 소매에서 긴 소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셔츠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애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하나로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레저생활이 확대되면서 셔츠는 캐주얼한 겉옷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정장의 드레스 셔츠 또한 종래에는 속옷의 개념으로 흰색의 무지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겉옷의 개념으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셔츠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셔츠는 속옷이 아닌 겉옷 개념으로 재킷이나 슈트와 함께 착용하는 필수 아이템 또는 단품으로 착용되고 있다. 셔츠는 형태상 거의 속옷처럼 피부에 닿는 면적이 커서 다른 아이템보다 소재의 촉감이 중요하며, 무늬, 색상, 소재 등에 따라 셔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학생은 우리가 흔히 남방셔츠¹⁾라고 부르는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드레스 셔츠의 캐주얼한 스타일²⁾을 즐겨 착용하고 있어, 셔츠 소재의 색상과 촉감은 구매 요인 및 착용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패션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소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물성 등과 같은 기능적 차원에 촉감과 자연적인 느낌 등 심리적인 차원이 추가된 감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현대패션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소재에 따라 의류제품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인희(200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고 소재선호가 추구이미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대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깔끔한 이미지, 자연스러운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재질감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송보송한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 정장용 소재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적과 연령에 따른 소재 선호도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안춘순, 이승희, 양윤, 임숙자, Lennon, Parker, 2001), 김희숙과 나미희(2002b)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봄·가을용 슬랙스 소재로 가장 선호되는 소재는 면 능직물이었고 여름용 슬랙스 소재로는 린넨 평직물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두께가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근 소비자의 요구가 개성화, 기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패션상품의 차별화 수단으로 소재가 중요시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셔츠를 포함한 의류제품 구매시 선택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서는 스타일, 외관, 봉제상태, 맞춤새, 색채/무늬의 순이었고,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한 경우에는 스타일, 색채/무늬, 맞춤새, 직물, 외관의 순이어서 구체적인 의복 품목에서는 소재가 의복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Eckman, Damhorst & Kadolph, 1990), 정인희(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 구매시 평가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물리적 속성, 타인의식, 자기만족, 적합성 등의 요인이

1) 남방셔츠란 더운 남양지방에서 남자들이 착용하는 헐렁하게 맞는 앞 터점으로 된 반팔셔츠로 말하는 것이므로 일명 알로하 셔츠라고도 한다(패션큰사전, 1999: 55).

2) 아이비 리그 셔츠, 버튼다운 셔츠, 옥스퍼드 셔츠 등이 있다.

추출되었으며, 소재는 물리적 속성에 포함되었고 소재와 다른 평가요인의 상관관계로 소재 개념의 다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정장 구매시 중요시 여기는 점포속성은 분위기 및 서비스 요인이었고, 색상, 이미지, 디자인, 가격, 사이즈, 재질감 등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임숙자, 이숙희, 2004).

지금까지 셔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로는 세탁에 의한 드레스 셔츠의 물성변화(서정현, 성수관, 이송자, 권헌선, 1999; 이송자, 성수관, 권헌선, 1999), 셔츠 상표에 대한 선호도(이명희, 1999), 셔츠 블라우스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한진이, 조진숙, 2000), 직물의 역학적 성질과 캐주얼 셔츠의 의복형성성에 대한 연구(권오경, 권헌선, 장수정, 2001)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셔츠 소재의 촉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로는 셔츠 소재에 대한 태 언어도출 및 평가(이미식, 김은애, 김종준, 유효선, 2002)와 셔츠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김희숙, 나미희, 2002a)가 있으나, 셔츠의 착용과 구매실태를 파악하고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을 연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셔츠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므로 특정 스타일의 셔츠에 한정하여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셔츠 제조업체에 보다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셔츠 제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티셔츠를 제외한 직물소재로 된 캐주얼 셔츠에 대해서 가을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착용실태와 구매실태를 파악하고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을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469명으로 남학생 212명(45.3%), 여학생

257명(54.7%)이었다. 1학년이 57.6%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3.9%이었으며,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34.5%, 자연계열 45.4%, 생활과학계열 14.7% 및 예술계열 5.4%이었다. 조사대상 가정의 한달 수입은 200~300만원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36.7%는 10~20만원 미만, 34.8%가 20~3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2. 조사방법

선행연구(김민정 등, 2004; 이미식 등, 2002; 정인희, 2001)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 통계적 변인, 셔츠 구매와 착용실태 및 셔츠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된 설문지를 가지고 2003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셔츠의 구매와 착용실태 및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셔츠 착용실태

1) 소지실태

대학생들의 셔츠 소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을철을 중심으로 셔츠 소지수, 소지색상 및 무늬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가을철 평균 셔츠 소지수는 남학생의 경우 4.2매(범위 1~15매)이었고 여학생은 4.1매(범위 1~10매)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

〈표 1〉 성별 소지하고 있는 가을철 셔츠의 무늬 비교

빈도(%)

구 분	줄무늬만 있음	체크무늬 만 있음	줄무늬> 체크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기 타	χ^2
남학생 (n=202)	35(17.3)	49(24.3)	46(22.8)	37(18.3)	24(11.9)	11(5.4)	34.63 p<.001
여학생 (n=253)	81(32.0)	32(12.6)	60(23.7)	17(6.7)	37(14.6)	26(10.3)	
계 (n=455)	116(25.5)	81(17.8)	106(23.3)	54(11.9)	61(13.4)	61(13.4)	

이는 없었다.

소지하고 있는 셔츠는 단색이 더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41.7%이었고 23.9%는 무늬 있는 셔츠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반씩 소지하고 있다고 한 경우는 34.4%인 것으로 나타나서 소지하고 있는 셔츠는 단색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단색/ 무늬 셔츠 소지정도는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무늬 있는 셔츠의 소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과반수(58.2%)가 무늬 없는 단색의 셔츠를 선호하였으며, 여학생(62.3%)이 남학생(53.3%)보다 단색 셔츠를 더 선호하는 것(p<.05)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지하고 있는 셔츠의 무늬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줄무늬 셔츠만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줄무늬>체크무늬인 경우(23.3%)이었고 체크무늬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17.8%로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는 셔츠의 무늬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은 줄무늬 셔츠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체크무늬 셔츠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주지역 대학생이 소지한 셔츠의 무늬는 줄무늬와 체크무늬가 대부분이었으며 남학생은 체크무늬 셔츠가, 여학생은 줄무늬 셔츠를 더 많이 소지하고 알 수 있었다. 이는 무늬 있는 셔츠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줄무늬(53.2%), 체크무늬(37.9%), 꽃무늬(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 비해(28.6%) 남학생의 경우 체크무늬를 더 선호하였고(49.3%)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줄무늬(44.4%, 60.3%)와 꽃무늬(6.3%, 11.1%)를 더 선호하는 것(p<.001)과 일치되는 경향이었다.

한편, 소지하고 있는 가을철 셔츠의 색상을 조사하여 소지하고 있는 빈도를 중심으로 나타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셔츠의 색상으로는 화이트가 61.6%로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블루(49.0%), 베이지(39.0%), 브라운(35.0%), 그레이(24.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퍼플(11.9%)과 레드(11.3%) 색상의 셔츠 소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는 셔츠의 색상은 그린과 레드 및 베

〈표 2〉 성별 소지하고 있는 춘추용 셔츠의 색상 비교

소지빈도(%)

구 분	화이트	옐로우	그 린	블 루	퍼 플	레 드	브라운	그레이	블 랙	베이지	핑크
남학생 (n=212)	109 (51.4)	30 (14.2)	54 (25.5)	92 (43.4)	18 (8.5)	19 (9.0)	89 (42.0)	64 (30.2)	46 (21.7)	92 (43.4)	19 (9.0)
여학생 (n=257)	180 (70.0)	57 (22.2)	58 (22.6)	138 (53.7)	38 (14.8)	34 (13.2)	75 (29.2)	51 (19.8)	28 (10.9)	91 (35.4)	67 (26.1)
계 (n=469)	289 (61.6)	87 (18.6)	112 (23.9)	230 (49.0)	56 (11.9)	53 (11.3)	164 (35.0)	115 (24.5)	74 (15.8)	183 (39.0)	86 (18.3)
χ^2	17.03 p<.001	4.95 p<.05	0.53 N.S	4.93 p<.05	4.37 p<.05	2.11 N.S	8.36 p<.01	6.71 p<.01	10.20 p<.001	3.11 N.S	22.70 p<.001

이지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이트, 옐로우, 블루, 퍼플, 핑크 색상의 셔츠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브라운, 그레이와 블랙 색상의 셔츠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색상 중에서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셔츠 색상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화이트(51.4%), 베이지와 블루(43.4%), 브라운(42.0%), 그레이(30.2%)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화이트(70.0%), 블루(53.7%), 베이지(35.4%), 브라운(29.2%), 핑크(26.1%)의 순이어서 여학생은 화이트와 블루셔츠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화이트와 베이지 셔츠를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셔츠 착용빈도와 방법

가을철 셔츠의 착용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의 55.8%는 주 1~2회 셔츠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5.0%는 주 3~4회 착용한다고 응답하여 대학생의 통학복 아이템으로 셔츠를 자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셔츠의 착용빈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셔츠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남학생의 경우 셔츠, 스웨터가 상의에 착용하는 주요 아이템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이외에 블라우스 스타일이 추가되므로 남학생의 셔츠 착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가을철 대학생들이 셔츠 안에 어떠한 옷을 착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메리야스를 착용한 경우(21.8%)이었으나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경우도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셔츠 안에 착용하는 옷의 종류는 유의한 차이를 보

여($p < .001$), 남학생은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6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경우(24.2%)이었으나, 여학생은 티셔츠(35.3%), 메리야스(28.5%), 메리야스와 티셔츠를 함께 입는 경우(17.7%)로 나타나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셔츠는 맨살에 착용하는 속옷이었지만, 현재는 겉옷으로의 착용이 대부분이므로 땀 흡수나 피부의 보호 및 청결유지 등의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셔츠 착용시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김양원, 1998).

다음으로 셔츠 위에 착용하는 옷에 대해서 응답하게 한 결과, 스웨터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7.2%), 그 다음으로는 셔츠만 착용하는 경우(20.8%), 스웨터와 카디건을 함께 착용하는 경우(19.0%), 카디건(18.5%)을 착용하는 순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가을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통학복이나 외출시 속옷으로는 메리야스나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셔츠를 입으며 스웨터 또는 카디건을 덧입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셔츠 구매실태

대학생의 셔츠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셔츠 구매자, 정보원, 구매시 동반자, 장소 및 가격 등을 조사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셔츠는 조사대상의 82.7%가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셔츠 구매시 이용하는 주된 정보원은 매장의 디스플레이(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시 동반자는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으며(59.4%), 주로 셔츠 직매장/대리점(45.4%)과 의류도매상가(26.9%)를 이용하

<표 3> 성별 셔츠의 착용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전혀입지않음	빈도(%)
남학생(n=211)	20(9.5)	74(35.1)	102(48.3)	15(7.1)	36.41 p<.001
여학생(n=257)	9(3.5)	43(16.7)	159(61.9)	46(17.9)	
계(n=468)	29(6.2)	117(25.0)	261(55.8)	61(13.0)	

〈표 4〉 성별 셔츠의 구매상태 비교

빈도(%)

	구 분	본 인	부 모	손위 형제	동 생	기 타	χ^2
구 매 자	남학생	175(83.7)	16(7.7)	11(5.3)	3(1.4)	4(1.9)	3.45 N.S
	여학생	207(81.8)	22(8.7)	18(7.1)	5(2.0)	1(0.4)	
	계	382(82.7)	38(8.2)	29(6.3)	8(1.7)	5(1.1)	
정 보 원	구 분	TV	인쇄매체	디스플레이	인적정보	인터넷	χ^2
	남학생	14(6.7)	12(5.7)	117(56.0)	41(19.6)	25(12.0)	40.38***
	여학생	1(0.4)	29(11.9)	179(73.7)	25(10.3)	9(3.7)	
계	15(3.3)	41(9.1)	296(65.5)	66(14.6)	34(7.5)		
동 반 자	구 분	혼 자	동성친구	이성친구	형제자매	부 모	χ^2
	남학생	21(10.6)	117(58.8)	27(13.6)	20(10.1)	14(7.0)	35.19***
	여학생	14(5.5)	152(59.8)	5(2.0)	45(17.7)	38(15.0)	
계	35(7.7)	269(59.4)	32(7.1)	65(14.3)	52(11.5)		
구매장소	구 분	백화점	도매상가	상설할인매장	직매/대리점	기 타	χ^2
	남학생	25(11.8)	61(28.8)	12(5.7)	95(44.8)	19(9.0)	1.75 N.S
	여학생	39(15.2)	65(25.3)	12(4.7)	118(45.9)	23(8.9)	
계	64(13.6)	126(26.9)	24(5.1)	213(45.4)	42(9.0)		
구매가격	구 분	3만원미만	3-5만원미만	5-7만원미만	7-9만원미만	9만원이상	χ^2
	남학생	54(25.7)	104(49.5)	27(12.9)	14(6.7)	11(5.2)	15.31**
	여학생	96(37.4)	124(48.2)	16(6.2)	17(6.6)	4(1.6)	
계	150(32.1)	228(48.8)	43(9.2)	31(6.6)	15(3.2)		

p<.01. *p<.001.

여 과반수(48.8%)가 3~5만원대 셔츠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셔츠 구매시 이용하는 정보원과 동반자 및 구매가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셔츠 구매시 TV와 인터넷 등의 영상매체 정보원 및 친구 등의 인적 정보원을 더 활용하였고, 여학생은 카탈로그와 패션잡지 등 인쇄매체 정보원 및 매장 디스플레이 정보원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셔츠 구매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혼자 쇼핑하거나 이성친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학생은 부모와 자매 등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의 셔츠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셔츠를 선물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셔츠를 선물한 경우는 39.0%이었고 선

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0%로 나타나서 셔츠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셔츠를 선물로 받은 비율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44.5%)보다 남학생(65.4%)이 셔츠 선물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를 선물한 경우 대상으로는 이성친구(45.7%), 가족(26.8%), 동성친구(25.0%)의 순이었으나, 선물로 받은 경우 대상으로는 가족(42.3%), 이성친구(34.5%), 동성친구(19.5%)의 순이어서 선물을 할 때는 이성친구에게 그리고 받을 때는 가족으로 나타나서 셔츠를 선물로 주고 받는 대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셔츠 구매시 정보원으로 남학생은 영상매체와 인적정보원을, 여학생은 인쇄매체 및 디스플레이 정보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이성친구를, 여학생은 가족을 동반하여 셔츠를 구매하는 경향이

〈표 5〉 성별 셔츠 구매시 품질표시 확인정도

빈도(%)

확인 정도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확인	항상 확인	χ^2	
섬 유	남학생	82(39.8)	67(32.5)	41(19.9)	16(7.8)	16.97***
	여학생	65(26.0)	72(28.8)	87(34.8)	26(10.4)	
	계	147(32.2)	139(30.5)	128(28.1)	42(9.2)	
제조회사	남학생	40(19.5)	33(16.1)	50(24.4)	82(40.0)	4.26 N.S
	여학생	46(18.2)	55(21.7)	70(27.7)	82(32.4)	
	계	86(18.8)	88(19.2)	120(26.2)	164(35.8)	
치 수	남학생	5(2.4)	2(1.0)	14(6.8)	185(89.8)	1.11 N.S
	여학생	4(1.6)	1(0.4)	16(6.3)	234(91.8)	
	계	9(2.0)	3(0.7)	30(6.5)	419(90.9)	
세탁표시	남학생	52(25.4)	63(30.7)	61(29.8)	29(14.1)	22.72***
	여학생	30(12.0)	57(22.9)	109(43.8)	53(21.3)	
	계	82(18.1)	120(26.4)	170(37.4)	82(18.1)	

***p<.001.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 정도는 셔츠를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대학생들이 셔츠를 선물하는 이유로는 다른 의복 아이템에 비해 셔츠의 디자인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고 치수 또한 4~5단계 정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이 아니어서 선물 아이템으로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셔츠 구매시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셔츠 구매시 대학생들은 치수를 확인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회사(상표), 세탁표시, 섬유소재의 순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제품은 착용과 세탁을 반복하는 내구성 소비재이어서 소재가 구매시점보다 착용 중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류제품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의류제품 정보가 담겨있는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 셔츠 구매시 품질표시 중 섬유소재와 세탁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등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실제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

는 경우가 더 많고 남성셔츠에 비해 여성셔츠의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섬유소재와 세탁 등의 취급 표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6〉은 셔츠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7=매우 중요하

〈표 6〉 성별 셔츠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 비교

요 인	남학생(평균)	여학생(평균)	계(평균)	t-값
치 수	6.24	6.39	6.32	-1.55
색 상	6.10	6.24	6.18	-1.43
체형에 어울림	5.99	6.29	6.15	-3.01**
착용감	5.63	5.75	5.70	-1.13
가 격	5.59	5.63	5.61	-0.37
소재의 촉감	5.15	5.25	5.21	-0.90
봉제상태	4.73	5.26	5.02	-3.91***
구김정도	4.55	4.81	4.70	-1.98*
유행스타일	4.63	4.42	4.51	1.44
세탁용이성	4.09	4.84	4.50	-5.47***
상 표	4.12	4.04	4.07	0.61
섬유소재	3.75	4.47	4.14	-5.81***
원산지	3.25	3.58	3.43	-2.18*

* p<.05, **p<.01, ***p<.001.

다)로 조사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셔츠 구매시 치수(평균 6.32)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색상, 체형에 어울림, 착용감, 가격, 소재의 촉감, 봉제상태 등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셔츠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정도는 평균 3.43으로 나타나서 다른 요인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셔츠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셔츠 구매시 체형에 어울리는 정도, 셔츠의 봉제상태, 세탁과 관리용이성, 섬유소재 및 원산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자신의 체형과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셔츠 구매시 이러한 정보를 더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셔츠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치수, 색상에 이어 착용감과 소재의 촉감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학생들은 의복 구매시 옷감을 만져보는 등 소재의 질감을 중요시하였고 구매후 평가에서 소재는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정인희, 2002; 최종명, 2003)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셔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셔츠 소재에서 선호하는 주관적 감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셔츠 소재의 감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이미식 등, 2002; 정인희, 2001)를 참고로 하여 선정된 가을철 셔츠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24감각에 대해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7=대단히 선호한다)로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셔츠 소재에 대한 총 24감각 중에서 '가볍다'는 감각이 평균 5.40으로 가장 선호하는 감각으로 나타났으나, '끈적거린다'는 1.86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즉 '가볍다', '촉촉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구김이 가지 않는다', '보송보송하다', '강하다' 등은 높은

<표 7> 성별 가을철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비교

감각 용어	남학생(평균)	여학생(평균)	계(평균)	t-값
가볍다	5.26	5.52	5.40	-2.06*
촉촉하다	5.02	5.30	5.18	-2.04*
부드럽다	5.44	4.94	5.17	3.98***
따뜻하다	4.88	5.14	5.03	-1.97*
구김이 안 간다	5.05	5.01	5.03	0.22
보송보송하다	4.82	5.11	4.98	-2.10*
강하다	4.73	4.72	4.72	0.03
신축성이 있다	4.52	4.49	4.50	0.21
매끄럽다	4.39	4.23	4.30	1.00
폭신하다	4.40	4.02	4.19	2.72**
두껍다	3.55	3.51	3.53	0.41
늘어난다	3.33	3.11	3.20	1.44
광택있다	3.38	2.86	3.19	3.67***
건조하다	2.98	2.93	2.95	0.33
뻣뻣하다	3.05	2.82	2.92	1.68
성글다	2.80	2.45	2.61	2.49**
오돌도돌하다	2.84	2.36	2.58	3.85***
차갑다	2.69	2.27	2.46	3.32***
투박하다	2.67	2.28	2.45	2.99**
딱딱하다	2.63	2.29	2.44	2.63**
휘감긴다	2.67	2.11	2.36	4.47***
바삭거린다	2.62	2.15	2.36	3.54***
거칠다	2.52	2.22	2.35	2.48**
끈적거린다	2.09	1.67	1.86	3.51***

* p<.05, **p<.01, ***p<.001.

점수를 보여 셔츠 소재에서 선호하는 감각들이었고, '끈적거린다', '거칠다', '바삭거린다', '휘감긴다', '딱딱하다', '투박하다', '차갑다' 등은 점수가 낮아 선호하지 않는 감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벼우면서도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가을철 셔츠 소재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셔츠 소재에 대한 24감각 중에서 16감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볍다', '촉촉하다', '따뜻하다', '보송보송하다' 등의 4감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드럽다', '폭신하다' 등의

12감각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한 촉감과 광택이 있는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학생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촉감과 촘촘하면서 보송보송한 특성을 가진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시판되는 셔츠의 대부분은 유니섹스 스타일로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치수에만 차이를 두어 남성용, 여성용, 공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별에 따른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의 차이를 반영하여 섬유성분과 직물조직을 차별화하여 대학생을 위한 셔츠를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셔츠의 착용 및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을 파악하여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가을철 셔츠 소지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평균 4매 정도이었고, 셔츠 착용빈도는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셔츠착용율이 높았다.

2. 무늬 있는 셔츠보다 단색의 셔츠를 더 선호하였고 소지하고 있는 셔츠 또한 단색이 더 많았는데, 소지하고 있는 셔츠의 색상은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 대다수가 매장의 디스플레이에서 셔츠에 대한 정보를 얻어 동성친구와 함께 셔츠 직매장/대리점에서 3~5만원대 셔츠를 직접 구입하는 경향이었는데,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셔츠 구매시 치수와 제조회사 및 상표를 확인하는 정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세탁표시와 섬유소재 확인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의 확인정도가 더 낮았다.

5. 셔츠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으로는 치수, 색상, 체형에 어울림, 착용감, 가격, 소재의 촉감, 봉제

상태 등의 순이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러한 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6. 셔츠 소재로 선호하는 감각은 '가볍다', '촘촘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구김이 가지 않는다', '보송보송하다', '강하다'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셔츠 소재로 선호하지 않는 감각은 '끈적거린다', '거칠다', '바삭거린다', '휘감긴다', '딱딱하다', '투박하다', '차갑다' 등의 순이었다.

7.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은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은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한 촉감과 광택이 있는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촉감과 촘촘하면서 보송보송한 특성을 가진 셔츠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대학생들은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셔츠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있으므로 셔츠 판매점에서는 브랜드 컨셉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셔츠 구입시 치수와 상표는 확인하지만 세탁표시와 섬유소재의 확인 정도가 낮으므로 내구성 소비재인 의류제품은 소재가 구매시점보다 착용 중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류제품 정보가 담겨있는 품질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셔츠 착용시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학생에게 속옷을 착용하도록 의복관련 교양과목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소재 감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셔츠를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오경, 권현선, 장수정(2001), 직물의 역학적 특성으로부터 셔츠의 의복형성성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223-232.
- 김민정, 임숙자, 이숙희(2004), 남성 정장 구매행동에

-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320-331.
- 김양원(1998). 하절기 속옷의 착용이 인체의 생리적 반응과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1), 139-146.
- 김희숙, 나미희(2002a). 대학생의 셔츠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63-271.
- 김희숙, 나미희(2002b). 슬랙스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81-389.
- 서정현, 성수광, 이송자, 권현선(1999). 반복세탁 및 건조방법이 드레스셔츠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 182-187.
- 안춘순, 이승희, 양윤, 임숙자, Lennon, S. J., & Parker, S. M. (2001). 한국과 미국의 여성의 정장용 소재에 대한 한·미 소비자 선호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217-227.
- 이명희(1997). 셔츠 및 청바지의 상표선택과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63-275.
- 이미식, 김은애, 김종준, 유효선(2002). 춘추용 블라우스/셔츠 소재의 태 언어 도출 및 평가. *한국섬유공학회지*, 39(1), 125-132.
- 이송자, 성수광, 권현선(1999). 반복세탁 및 건조방법이 드레스셔츠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II).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 259-263.
- 정인희(2001). 여자 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4), 629-638.
- 정인희(2002).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소재 선호 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1), 83-94.
- 최종명(2003). 여대생의 의류소재 인지도와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7(2), 1-10.
-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교문사.
- 한진이, 조진숙(2000). 신축성소재, 셔츠 블라우스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3), 289-300.
-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2004년 7월 24일 접수, 2004년 11월 3일 채택)